



Archdiocese  
of Toronto

Catholic Pastoral Centre  
1155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4T 1W2  
T 416.934.0606  
www.archtoronto.org

프란치스코 레오 대주교 강론

토론토 대주교

관리인직 주일-2024년 9월22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론토 대교구 전역에 걸쳐 관리직 주일을 기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삶속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추구하는지, 교회와 개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면에 대해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직인데 특히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과 거룩함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심오하고 개인적이며 초월적이고 구원적인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의 삶을 물들여주는, 믿음과 신뢰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충실히 섬기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순례자로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에게도 봉사하며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았습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직은 이러한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봉사. 상처받은 인류에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항상 머무르며 증거하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리직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주위와 우리들을 통해 그분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내적인 태도이며 다각적인 접근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관리직을, 과정 혹은 가톨릭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묘사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관리직은, 과거에는 독점적으로, 우리들의 은총을 나누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필수적이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느님을 따르는 가톨릭 신자로서 봉사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살아있고 적극적인 헌신, 역동적인 변화, 믿음과 참여의 생명을 주는 것을 발전시키는 연장선에서 관리직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의 기부나 희생 혹은 관심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이며 생기를 불어넣는, 가슴과 마음의 설득력 있는 성향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가지신 신비로운 무한한 사랑을 밝히고 발견하고 다시 재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의지,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더 위대한 목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왕도이며, 왕의 길이고, 왕국으로 가는 길이며,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하시듯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려 노력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장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신비로운 관리인이며,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인 관리인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미사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차를 같이 태워주거나,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거나, 본당의 바자회를 계획하거나,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묵주 기도를 바치거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 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자들을 위해 봉성체를 하거나, 적을 용서하거나, 불의에 대항하거나 혹은 본당, 이웃, 지역사회안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거나, 해로운 이념과 이단으로부터 가톨릭 신앙의 통합을 위해서 대항하거나, 젊은이들의 삶에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불려 주는 것입니다. 그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또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줍니다. 모든 것이 진실, 삶, 거룩함, 은총, 공평, 사랑, 평화이신, 왕국의 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교황 교서인 빠뜨리스 꼬르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교황님께서 설명하시는 한 구절은 유쾌합니다. 무엇인가를 희생하거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도록 초대받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 실현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요셉 성인은 단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성인에게서는, 결코 좌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신뢰만 봅니다... 우리 세상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사람들, 비굴한 섬김, 억압적인 토론, 복지 사고방식을 가진 자선 단체, 파괴력을 가진 권력을 거부합니다. 모든 진정한 소명은, 성숙한 희생의 결실인, 자기 자신을 위한 은총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제직과 봉헌의 삶은, 이 정도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든, 결혼이든, 독신이든, 동정이 만일 희생에서 멈춘다면, 자신의 선물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기도와 격려, 희망과 자선, 매일의 노동과 장기적인 안목을 봉헌하고, 성화와 하느님을 찬미하는 수단인, 신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써

드러냅니다. 자기-희생은 방정식의 일부분이지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삶의 평온한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 참으로 우리 공동체안으로 은총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언을 통해, 은총, 자유, 자애로움,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선물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례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 관리직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주일에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행과 봉사안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필요한 희생 그 이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도록 격려하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살아가신 방법인, 훨씬 더 깊고, 더 거룩하고, 진정한 길,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봉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